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OB HONEY WHO JUST DO STUFF

가제 : 밥 허니의 엉뚱한 인생

저자 : Sean Penn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8년 3월 27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풍자/유머소설



- *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을 두고 재미 있다고 하는 건 이상해보이지만, 이 책은 실제로 그랬다. 토머스 핀천, 헌터 S. 톰슨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 소설가 살만 루슈디
- * “주인공 밥은 너무 심하게 괴짜라서 도저히 눈을 땔 수가 없는, 놀라운 인물이다. 스토리가 난해하고 때때로 초현실주의적인 느낌도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이 책의 헤아릴 수 없는 매력이 담겨 있다.” – 「북리스트」

무슨 일을 하는지 겉으로 보서는 알 수 없는 남자, 하지만 온 동네 주민의 심기를 긁어놓을 만큼 괴상한 행동을 골라서 하는 50대 중반의 이혼남 밥 허니에게는 누구보다 잘 하는 일도 많지만 누구보다 서투른 일도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배우로 잘 알려진 손 펜은, 이 책에서 아내와 이혼한 이후 더더욱 사람과 제대로 사귀지 못한 밥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이 소설에서 그리며, 현대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조리와 위선, 가식, 허영으로 뿔뿔 뭉쳐진 사람들을 꼬집는다.

이 책은 희곡은 아니지만 각본처럼 각 장면이 열다섯 개의 장으로 짙막하게 이어지는 독특한 구성으로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책은 밥이 엉뚱한 인생 항로에 접어들고 그럴수록 점점 고립되다 뜻밖의 갈림길에 서는 과정이 신랄한 사회 풍자와 함께 그려진다. 번듯하게 꾸민 겉모습과 친절한 행동 뒤에 숨은 사람들의 거짓을 혐오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2016년, 손 펜이 패피 패리아 (Pappy Pariah)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오디오북을 토대로 다시 쓴 소설이다.

캘리포니아 주 스윓도그 레인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01년 말부터였다. 스윓도그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로 이웃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쉽게 노출되는 동네였다. 그렇다보니 밥 허니가 혼자 사는 집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첫 번째 신고는 그가 웬 두툼한 전선을 창고에서 가득 꺼내놓고 집을 그 전선으로 둘둘 감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찾아가면 늘 집주인은 집에 없거나 있는데 없는 척 하거나 둘 중 하나였지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얼마 후에는 잔디를 전혀 깎지 않아 마당을 정글처럼 만들어버린 바람에 잘 다듬어진 깔끔한 동네 분위기에 밥 허니의 집이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고, 이는 지역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경찰은 여전히 응답 없는 이 주민의 집에 경고문을 붙여놓았다. 밥 허니의 대응은? 새벽 세 시에 찌렁찌렁 모터 소리를 울려가며 잔디를 싹 깎아버렸다. 자다 깬 주민들이 깜짝 놀라 또 다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그 소란스러운 작업이 다 끝나고 고요해진 동네에 갓 잘라낸 잔디의 풋내만 진동할 뿐이었다.

사실 밥 허니는 여러모로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다. 사업가로 이런저런 일에 손대던 그는 정화조 사업에 발을 들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커다란 건물에서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한 오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화조를 개발해낸 그는 영업 수완도 좋아서 여호와의 증인을 단골로 만들고 이 종교인들이 이용하는 미국 전역의 시설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독점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 앉은 후에도 밥 허니의 야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고 2003년, 해외 진출을 위해 바그다드로 향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꼬인 건 여기서부터였다.

바그다드에서 무장한 괴한들에게 납치된 밥 허니는 ‘루드스타’라는 지하세계 범죄집단의 우두머리 앞으로 끌려가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직원’이 된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놀랍게도 청부살인, 더 놀라운 사실은 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노인들을 타깃으로 암암리에 벌어지는 이 살인 행각이 미국 정부기관과도 연계가 되어 있으며, 생산력 있는 젊은 시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청소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줄지에 국가 기관의 ‘인적 환경 개선’ 사업에 일원이 되어 청부 살인을 시작한 밥 허니의 삶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를 일이 일어난다. 지역 경찰서에서 주민 신고기록을 읽어본 기자가 밥 허니에 대한 민원이 10년 이상 줄기차게 쏟아진데다 그 내용이 하나 같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갖고 그를 찾아온 것이다. 스펠리 컬티에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밥 허니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꼬치꼬치 질문을 던져대는데, 아내와 헤어진 뒤부터는 사업적인 관계 외에 친근한 관계와는 담을 쌓고 지내온 밥은 참 희한하게도, 어쩌면 스펠리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 지금껏 상대해온 위선 덩어리들과의 거래에 신물이 난 밥은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느낀다. 냉소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풍자가 유쾌하게 이어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손 펜(Sean Penn)은 아카데미 상 후보로 다섯 차례 선정된 영화배우이자 영화감독이며 작가, 사회 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영화 『미스틱 리버』, 『밀크』로 아카데미 상을 두 번 수상하고 골든글로브 상을 수상했다. 현재까지 100편이 넘는 영화에 배우로, 제작자로 참여했다.

제목 : THE FARM
가제 : 저는 대리모입니다
저자 : Joanne Ramos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발행일: 2019년 여름
분량 : -
장르 : 영미소설일반

*** 2018 런던 도서전 화제작**

*** 영국(경매, 수십만 달러 규모), 브라질(pre-empt), 폴란드(pre-empt), 헝가리(3자 경매),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판권 계약**

부유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하지만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대신 아이를 품고 낳아주는 곳, ‘골든 오크’는 최고의 대리모 시설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과 아무리 노력해도 빠듯한 인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절박한 사람들이 조우하는 곳이다.

필리핀 출신의 미국 이민자로 갓난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주인공 제인이 친척 할머니의 소개로 골든 오크의 ‘손님’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이 소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대리모가 되기로 한 여성들의 사연과 낯선 땅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물불을 가릴 여유조차 잃은 이민자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조명한다. 제인과, 제인의 친척이자 골든 오크에 제인을 소개한 70대 노인 아테, 최고급 대리모 시설을 만든 야심 만만한 기업가 메이 유,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한 리건까지, 각기 다른 네 명의 시선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데뷔소설로서는 이례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제인은 태어난 지 겨우 일주일 된 딸아이 아말리아를 데리고 남편 빌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버린 날부터 이미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유일한 버팀목이던 남편에게 숨겨둔 애인이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알면서도 묵인해왔으며 제인 혼자 몰랐다는 사실을 안 순간, 더는 그 집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제인은 할머니의 친척인 아테 할머니를 찾아간다. 아테 할머니는 대부분 필리핀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합숙 시설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위층에 빈 침대가 하나 남아 있어서 제인과 아말리아가 한동안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고맙게도 할머니가 몇 주치 방세까지 내준 덕분에 제인은 한 방에 여섯 명, 어떨 때는 그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시설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아테 할머니의 직업은 산후 조리사였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집에서 몇 달간 머물면서 산모를 도와주는 일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 제인이 보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투철했다. 하지만 제인이 시설로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어느 부잣집으로 가 산모와 신생아를 돕던 아테는 그 집에서 쓰

러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간다. 그 집 가정부의 연락을 받고 정신 없이 병원으로 달려간 제인은 겨우 의식을 차린 아테 할머니의 부탁으로 할머니가 일하던 곳에 임시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아말리아는 아테 할머니가 봐주기로 하고, 제인은 태어나 처음으로 남의 아이를 봐주려 입주 도우미 일을 시작한 것이다. 머뭇대며 시작한 그 새로운 일은 제인에게 뜻밖의 출발점이 되었다. 풍족한 집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면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온 몸으로 체감한 것이다.

골든 오크는 허드슨 밸리 한 켠, 고요한 전원 풍경이 펼쳐진 곳에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면 전부 제공되는 특별한 시설이다. 메이 유가 설립한 이 대리모 전용 시설은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자궁에서부터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신경 쓴다. 유기농 식재료로만 만든 균형 잡힌 식단과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음악을 비롯한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 머물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평가가 실시된다. 젊은 건 필수, 코르티솔 수치가 최적화된 건강한 자궁을 가진 여성만 골든 오크에 머물며 대리모로 일할 수 있다. 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골든 오크의 ‘손님’, 즉 대리모가 되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9개월간 골든 오크의 극진한 서비스를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던 가난을 단숨에 벗어 던질 수 있을 만한 돈을 거머쥔 수 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던 제인은 아테 할머니의 소개로 골든 오크의 대리모가 된다. 제인과 같은 방을 배정 받은 리건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에서 특권층이라 불리는 삶을 살면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 목적도 없는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다 대리모에 지원한 사람이다. 골든 오크의 대표, 메이 유는 제인과 리건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불임 부부에게는 자식을 안겨주고 가난한 여성들은 부를 얻을 수 있기에 누구도 해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대리모라는 일은, 그 좋은 의도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집약된 기간, 아기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9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아주 길고, 험난하다.

이야기는 골든 오크와 뉴욕 5번가의 대저택들,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퀸즈의 비좁은 시설을 오가며 극명히 대비되는 이들의 생활 모습과 환경,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갖가지 감정과 사건들을 담아낸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그저 ‘운’으로 갈라지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불평 등하고 부조리한 지위 혹은 계급을 물려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엄마가 되고 엄마로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독특한 소재를 통해 탐구한 흡인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앤 라모스(Joanne Ramos)는 필리핀에서 태어나 여섯 살에 위스콘신으로 이민을 왔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계에 수년간 몸담았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소속 기자로도 활동했다.

제목 : NINE LESSONS

가제 : 아치 펜로즈 경감과 캠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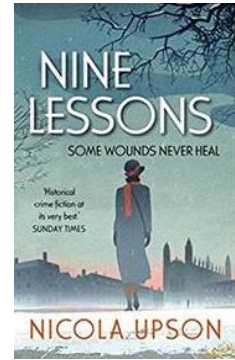
저자 : Nicola Upson

출판사: Crooked Lane Books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추리/미스터리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7년 최우수 도서

★ “재클린 원스페어의 ‘Maisie Dobbs’ 시리즈와 같은 영국의 역사 미스터리 팬들은 깊이 있고 따뜻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고전적인 추리 소설에서 큰 즐거움을 얻을 것” – 「라이브러리 저널」

★ “강렬한 스토리 라인과 1937년 잉글랜드의 생생한 묘사로 사실과 허구를 능숙하게 결합한, 뛰어난 소설” – 「북리스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소설가 M.R. 제임스는 동료 학자들과 친구들 몇 명과 모인 자리에서 귀신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중에 책으로도 나온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25년 후, 시체가 되어 발견된다. 싸늘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37년, 런던 북부의 한 교회 묘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만 해도 그 사소한 모임이 살인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첨단 수사기법이라곤 전혀 없던 시대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끈질기게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력적인 이 소설은 실존 인물인 영국의 소설가 조세핀 테이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의 일곱 번째 이야기다.

맨 처음 교회 묘지에서 발견된 시체는 오르간 연주자 스티븐 렉스보로였다. 애완건을 데리고 산책에 나선 시민이 자꾸만 짚어대고 구멍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개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발견한 시신은, 묘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차갑게 굳어버린 시신의 형태와 그의 얼굴, 손톱과 팔에 난 상처 등 주변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살아 있는 채로 거대한 돌 무덤에 갇혀서 빠져 나오려고 온 힘으로 발버둥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 관 뚜껑이 모두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다. 누군가 그를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었다가, 숨이 끊어지자 불테면 보란 듯이 시신을 드러내놓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교구 담당 목사의 설명처럼 런던에서 유명 예술가들과 정치인들이 많이 묻힌 이 묘지는 규모가 굉장하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1800년대 후반 이후에 새로운 묘는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외딴 위치였다. 그가 산 채로 갇힌 묘의 비석도 오랜 세월 바람과 시간에 닳고 닳아서 실제 주인의 이름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시체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로 살인자가 그를 벌하려 했다는 사실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라는 알쏭달쏭한 문구가 적힌 쪽지와 함께, 큰 저택이 담긴 낡은 사진도 한 장 발견됐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을 벌인 것이라 확신한 아치 펜로즈 경감은 단서를 쫓아

캠브리지로 향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치의 오랜 친구인 작가 조세핀 데이, 그리고 아치와 전쟁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연인이 된 브리짓, 두 사람 모두 우연히 얼마 전 캠브리지에 새로 살 집을 마련했다. 마침 그곳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낸 성폭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범인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자 지역 전체가 불안에 사로잡히고, 조세핀은 지역 경찰을 도와 범인을 찾아내는 일에 동참한다. 해묵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끔찍한 피해를 입고도 어디다 제대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절망에 빠진 여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직접 나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성폭행에 희생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혹시 지어낸 얘기 아니냐는 의심까지 대놓고 거론할 정도였다. 조세핀은 이런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짐승 같은 짓을 이어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 다니고, 아치 경감의 살인사건 수사도 틈 나는 대로 돕는다. 그런데 자연스레 맞닥뜨리게 된 조세핀과 브리짓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브리짓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숨겨온 커다란 비밀을 조세핀이 눈치챈 것이다.

아치와 브리짓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경찰로, 화가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서로 얼굴 볼 틈도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다. 브리짓에게 필리스라는 다 큰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아치의 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조세핀이 먼저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아치와 브리짓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아치는 전쟁이 끝나고 계속해서 브리짓을 잊지 못하고 살았으면서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 브리짓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브리짓의 전시회에도 찾아와서 그림까지 사갈 정도로 계속 관심을 두면서도 우연찮은 만남으로 연인이 되기 전까지, 왜 아치는 브리짓을 멀리했을까? 살인 사건과 강간 사건에 뜻하지 않은 공통 분모가 발견되고 수사 방향이 확 바뀌는 동안 아치와 브리짓, 그리고 조세핀은 잊은 줄 알았던, 혹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여러 가지 사건이 뒤엉키다 하나로 결합되는 절묘한 스토리라인과 매력적인 인물들과 흥미로운 소재, 탄탄한 구성이 돋보이는 범죄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니콜라 업슨(Nicola Upson)은 캠브리지 다우닝 칼리지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극작가, 프리랜서 기자,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An Expert in Murder』를 시작으로 실존 인물인 조세핀 데이를 주인공으로 한 범죄 소설 시리즈를 쓰고 있다.

제목 : PECULIAR GROUND
가제 : 기이한 집
저자 : Lucy Hughes-Hallett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8년 1월 9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역사/가족소설



- * “올해 최고의 소설 중 하나” – 「타임(The Times)」
- * 데스몬드 엘리엇 상 후보작 / 논픽션(전기)으로 코스타 상을 수상한 작가의 소설 데뷔작
- * “정교하고 박학한 정보가 담긴 작품. 문화를 통해 입증된 인간의 관심사를 은은하게 조명하면서 치밀하게 짜인 이야기. A.S. 바이어트의 뒤를 이을 만한 작가다” – 「월 스트리트 저널」

옥스포드셔 위치우드는 매년 봄에 호수 주변에서 인디 음악과 포크송이 울려 퍼지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이자 애거서 크리스티의 미스 마플 시리즈 중 하나인 『위치우드 살인사건』의 무대로 사람들에게 친숙한 곳이다. 그리고 이 역사 소설에서 300여 년 동안 무수한 비밀과 소문, 갈등의 씨앗이 된 장소로 등장한다. 수백 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장소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무수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17세기 귀족의 대저택으로 형체를 갖추면서 처음으로 저택의 안과 밖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벽이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된다.

위치우드 저택이 맨 처음 형체를 갖춘 건 1663년, 영국의 내전이 끝나고 추방됐던 왕당파 소속 아서 포트스큐 백작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먼 옛날부터 집안 대대로 전해진 집을 그야말로 천국처럼 완벽하게 꾸미고 싶었던 포트스큐 백작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줄 전문가로 조경사 존 노리스를 고용한다. 요청을 수락하고 위치우드에 도착한 노리스는 자신이 재탄생시킬 대대적인 부지 주변의 환경을 두루 살펴보고, 백작이 제시한 다소 참신한 계획이 이 일대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임을 직감한다. 노리스는 주변 숲의 으스스한 공간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 달리 갈 곳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의 은신처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나라에서 정한 종교를 믿지 않는 개신교도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숲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용하는 복잡한 길이 위치우드 저택 부지도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포트스큐 백작은 저택 부지 경계에 높은 벽을 세워서 새로 마련될 정원과 분수, 말과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잘 닦은 널찍한 길과 그 주변에 늘어선 나무들을 외부와 분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잉글랜드에 무서운 전염병까지 덮친 상황이라 백작은 한사코 자신의 집은 지저분하고 불안정한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곳이 되기를 원했고, 노리스는 고용주의 뜻대로 거대한 저택 둘레에 벽을 세운다. 그리고 종교 때문에 외떨어진 삶을 택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은 비루한 은신처마저 빼앗기고 더욱더 고립된다.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300년이 지난 1960년대 냉전 시기로 넘어간다. 위치우드와 멀

리 떨어진 베를린에서 하룻밤 사이에 독일을 두 곳으로 분리하는 장벽이 세워질 즈음 위치우드 저택도 먼 옛날 포트스큐 백작이 가족, 친지들과 화려한 파티를 벌이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변모했다. 주말을 맞아 부모님을 따라 저택을 찾은 여덟 살짜리 꼬마 소녀 넬은 곳곳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수많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스파이, 비밀요원, 예술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은 작은 꼬마가 의자 뒤며 테이블 밑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중요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넬은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대화들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깨닫는다. 저 멀리 베를린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위치우드는 마치 바깥 세상과 두절된 것처럼, 호수 주변의 떠들썩한 공연과 파티로 흥겨운 분위기만 가득하다. 그러나 평화롭고 쾌활해 보이는 그 풍경 뒤에서, 사람들은 3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허락하지 않은 사랑과 욕망을 한껏 드러내고 오직 넬만이 허울을 벗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어린 두 눈으로 목격한다.

기나긴 역사만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 소설은 노리스가 처음 벽을 세울 때 직감했던 저택 내부와 외부의 분리로 인한 갈등이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인물들만큼 다채로운 시각으로 가만히 들여다본다. 땅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소유지를 활용하는 방식, 지배계층이 그 특권과 지위를 누리기 위해 희생 시킨 사람들과 신세 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대가 변하고 주변 풍경이 변해도 잔존하여 후대까지 전해지고, 그로 인해 한 집안을 덮친 비극은 자꾸만 반복된다. 마녀를 둘러싼 소문과 민간 설화, 은밀한 종교 의식이 행해지던 17세기에 그 혼란을 피하려고 세운 벽이 정말로 안전을 보장하고 벽 안쪽의 세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눈을 멀게 한 교도소 벽과 같은 기능을 했는지, 작가는 벽 안팎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넬이 어른이 된 1989년, 위치우드가 팝 페스티벌의 중심지가 되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이란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를 신성모독이라 단언하며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또 다시 시작된 이데올로기 갈등과 위치우드의 담 안쪽으로 숨어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모습과 형태만 조금씩 달라질 뿐, 역사는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작가의 방대한 지식과 역사적인 사실이 우아한 문장에 치밀하게 담긴, 의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시 휴스 홀레트(Lucy Hughes-Hallett)는 시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Gabriele D'Annunzio)의 전기 『The Pike』로 새뮤얼 존슨 상(Samuel Johnson Prize)과 더프 쿠퍼 상(Duff Cooper Prize), 코스타 상 전기 부문(Costa Biography Award) 등을 수상했다. 『Cleopatra: Histories, Dreams and Distortions』로는 포세트 상(Fawcett Prize)과 에밀리 토스 상(Emily Toth Award)을 수상했다.

NON-FICTION

제목 : THE POOR UNFORTUNATES

가제 : 가난하고 운 나쁜 사람들: 휴스턴 벤 타움 병원 성공기

저자 : Ricardo Nuila

출판사: Scribner (US), Little, Brown Book (UK)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약 280 페이지

장르 : 의학/에세이

* 8개 출판사가 참여한 경매를 거쳐 미국 출판 계약 / 영국 pre-empt 계약

* “관료주의와 규제로 가득한 복잡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가장 놀라운 생존기를 다룬 책. 평범한 사람들의 어둡고 힘든 시간에 관한 책이자,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희망과 승리,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다.” – UK 담당 편집자 알리아 아마드(Ailah Ahmed)

병은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생활 방식과 환경에 따라 확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사고를 당하고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문제는 몸이 아프거나 크게 다쳤을 때 치료의 ‘질’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가능한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법적으로는 정당한 시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 도저히 병원비를 낼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에 속한다. ‘사회 안전망 병원’은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치료비의 절반은 지역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저자는 휴스턴에서 가장 큰 사회 안전망 병원이자, 놀랍게도 미국 최고의 외상 치료 시설 중 한 곳으로도 꼽힌 휴스턴 벤 타움 병원(Ben Taub Hospital)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병원의 역할과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의 사연을 이 책에서 들려준다.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난과 만성 질환이라는 두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찾아온 사람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곳이다. 그만큼 사회 안전망 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들이 그 어느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벤 타움 병원과 형제 병원인 린든 B. 존슨 병원에만 매일 하루 62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매년 수천 명의 환자들이 10억 달러 규모의 치료가 제공된다.

왜 저자와 같은 벤 타움의 의사들은 힘들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따고도 좀 더 편하게,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반 병원 대신 이처럼 환자가 매일 넘쳐나는데다 서류 처리도 거추장스럽고, 꾸준히 치료를 받지 못해 몸 상태는 최악이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환자가 주를 이루는 이런 병원에서 일하려고 할까? 벤 타움 병원은 가난한 환자들을 상대하는 병원이다. 그러나 텍사스 주민들에게 벤 타움 병원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총 맞았을 때 가는 곳’이라는 대답

이 바로 나올 만큼 험한 총기 사고나 교통사고로 가장 위태로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가장 먼저 실려가는 곳이자, 번듯한 최첨단 시설을 구비한 화려한 병원들을 제치고 심혈관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 받을 만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저소득층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서비스 정도만 제공할 뿐 의사들의 실력이나 서비스 수준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확 바꿔놓은 벤 타웁 병원의 성공 사례는, 환자와 의료진의 '유대'에서 자연스레 피어난 것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법이 정한 틀과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목숨을 걸고 싸우기에도 벅찬 중증 환자들이 시민권과 의료보험, 경제적인 수준 등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사와 간호사, 병원의 모든 직원들과 환자의 가족들이 애쓰고 있는지 병상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로 풀어낸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효과적인 치료를 가로 막는 의료 시스템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 자원만 풍부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저자가 소개하는 이야기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목차>

- I. 머리말
- II. 신장 (콩팥 하나)
- III. 위·장관
- IV. 생식기관
- V. 신경
- VI. 면역계
- VII. 피부
- VIII. 근·골격계
- IX. 신장 (콩팥 둘)
- X. 평가/계획

<저자 소개>

리카도 누일라(Ricardo Nuila)는 벤 타웁 병원의 의사이자 내과학 교수를 맡고 있다. 「뉴요커」, 「애틀랜틱」 웹사이트, 「뉴욕타임스 선데이 리뷰」 등에 글이 실린 적 있다.

제목: TAKING TO THE AIR

가제: 하늘로: 비행의 문화사

저자: Lily Ford

출판사: British Library

발행일: 2018년 가을 예정

분량: 224페이지

장르: 인문/역사/문화사

***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가 풍부한 인문서**

*** 중세부터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까지 하늘을 날고자 했던 열망과 시도에 관한 문화사**

머리 위로 드넓게 펼쳐진 파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날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힌 인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비행기만 타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날고 싶다는 꿈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무수한 신화와 환상을 낳았다. 자신을 선지자라 주장한 사람이 날개를 달고 탑 위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본 중세시대 사람들이나, 18세기에 처음으로 열기구가 두둥실 떠오르는 광경을 바라보던 군중들, 20세기 초에 시작된 에어 쇼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십 만 명의 인파, 그리고 지구의 하늘을 넘어 아예 다른 행성인 달에 사람이 도달해서 표면에 발을 디디는 장면을 숨죽이며 주시하던 사람들 모두 비슷한 꿈과 경이로움 속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문화 역사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그토록 매력적인 꿈,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행사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명한다. 비행을 시도한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들과, 하늘을 날게 된 사람들의 시선을 동시에 중심에 두고,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다채로운 자료를 토대로 시대별로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사건들을 소개한다.

항공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되고 개발된 분야이다. 1780년대에 기구 비행이 최초로 탄생했을 때는 물론, 17세기 영국 왕궁에 이미 비행 엔지니어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물론 조지 오웰이 자신의 책에서 비행기와 무선 통신의 개발로 세상의 범위가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상세히 묘사했지만, 사실 항공술은 국가의 경계를 없앴 것보다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활용된 경우가 더 많다.

저자는 이 책 앞부분에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에서 하늘을 나는 것을 꿈꿔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것이 유럽의 문화에 남긴 흔적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20세기 항공 분야의 구조경제학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다. 이어 비행 기술 전문가들이 고개를 들면 바로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나는 것에서 벗어나 지구 대기권 넘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일들과 공중전을 통해 국가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던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치열한 대립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지구의 경계를 넘어 처음 우주 궤도로

나아가고, 달까지 날아가 달 표면에 실제로 착륙하기까지의 과정도 살펴본다.

이러한 비행술의 변천사를 기술적인 발전이 아닌 한 발 떨어져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관중과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실현된 일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먼 옛날 아직 하늘을 나는 것이 상상으로만 가능했을 때 등장한 여러 가지 문화적 산물을 팜플렛이나 신문, 잡지, 소설 등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제시한 색다른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1. 날개 달린 사람
2. 공기주머니
3. 공중에 뜨다
4. 공중 레슬링
5. 공중 진동
6. 비행의 즐거움
7. 하늘 위의 민족주의
8. ‘저 아래를 조심해’
9. 제트기 시대

결론

<저자 소개>

릴리 포드(Lily Ford)는 문화 역사가이자 영화 감독으로, 런던 대학교 시청각 연구소인 데렉 자먼 랩(Derek Jarman Lab)에서 교사로, 영화 제작자로 활동해 왔다. 「Times Literary Supplement」에 실리는 항공 관련 도서 리뷰도 담당하고 있다.



제목 : GET OUT OF YOUR OWN WAY

가제 : 범인은 나: 내 발목 스스로 그만 잡고 원하는 꿈에 다가서기

저자 : Alan Hester

출판사: Robinson

발행일: 2018년 7월 18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자기 발목을 스스로 묶는 바람에,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꿈에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 인식과 원인 찾기, 극복 방법**

누구나 꿈꾸는 삶이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그걸 죽기 전까지 이루는 사람을 별로 없다. 대다수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할까’ 한탄하면서 그냥 살아간다. 현재의 삶은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라고들 이야기한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니 모든 비난의 화살은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스스로를 한심하고 영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결론이 과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으니, 이제 반성하고 잘해보자는 결심이 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자신감마저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처럼 반복되는 자기 한탄과 자신감 결여, 그로 인한 더 큰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미 벌어진 결과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중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자신의 대처 방식과 반응은 얼마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저자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만들어낸 과거의 어리석은 선택과 의사결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내가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조언자이자 자극제, 친구로 변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저자가 직접 조언해온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유용한 툴도 함께 제공한다.

일에서나 인생 전반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 사회에서 늘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급격히 위축되거나, 그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분개하기도 한다. 저런 사람처럼 운이 좋다면, 신의 가호가 내게도 깃든다면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창창한 앞길을 가로막는 건 기막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사소한 습관인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시작하되 끝을 맺지 못하는 것, 매번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그보다 나쁜, 아예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확고한 생각으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어떤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 저자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스스로를 붙들어 매는 밧줄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우리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삼질을 계속 할까? 왜 자신에게 ‘안 좋은’ 일 인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좋은’ 일인 걸 뻔히 알면서 선뜻 해보지 못할까? 저자는 이 같은 의아한 상황이 왜 흔히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자신감 결여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다수에게 자연스레 나타나는 일인 이유를 설명한다.

한탄만 하는 대신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불필요한 자기 혐오 대신 할 수 있는 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안내서다.

<목차>

머리말 - 스스로 붙들어버린 발목

1장. 이대로 계속할까, 확 바뀌버릴까? 변화와 위험성, 그리고 의사결정

2장. 우리의 뇌: 사용법

3장. 혼잣말과 자기 충족적인 예언

4장. 행운과 기회, 우연

5장. 귀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 당신을 귀머거리로 만들 것이니

6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 자긍심과 자신감

7장. 여러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

8장. 이동과 회피, 지연(왜 이런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9장. 꿈과 목적, 목표: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할까?

10장. 붙들린 발목을 풀어줘라

<저자 소개>

앨런 헤스터(Alan Hester)는 2002년부터 ‘Alan Hester Associates’를 설립하고 자신감과 회복력 향상을 돕는 트레이너이자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MANAGEMENT STARTS WITH YOU』가 있다.

제목 : PRAYERS FROM THE HEART

가제 : 천사들이 주신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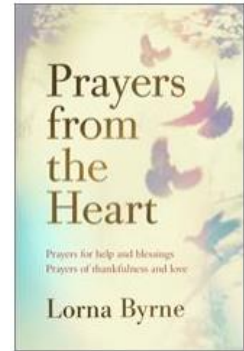
저자 : Lorna Byrne

출판사: Coronet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종교/에세이



- *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Angels in My Hair』의 작가가 쓴 명상과 기도에 관한 메시지,
- * “저자는 희망과 평화를 선사한다. 아주 많은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가 해주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다.” – 「타임(The Times)」
- * “저자의 메시지가 사랑과 연민, 용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 – 「아이리시 타임스」

어린 시절,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녀는 말을하지 못한 소녀 시절부터 천사를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해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50대가 된 소녀가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종교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안겨 주었다. 이후 저자가 전한 기도의 힘을 굳게 믿은 사람들은 각자 처한 상황을 그대로 전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자에게 요청했다. 이에 저자는 기도에 정해진 요령이나 법칙은 없지만, 기도하는 일 자체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명상의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기도가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자가 다른 사람들의 요청으로 제공해온 기도문을 토대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 함께 제시된다.

종교가 없어도,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반드시 있다. 일이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마음 한 구석에 불안이 슬며시 자리를 잡는 경우도 많다. 목표에 절반이나 다다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한데, 이제와 포기하자니 아래가 너무 까마득할 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을 때 집중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인생이 내리막길에 다다른 느낌일 때도 누구든 붙잡고 애원하고픈 심정이 된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혹은 마땅히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거나 아예 잡히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가라앉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주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다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방향을 알려준다. 저자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멎들어 기도로 도움을 청할 힘도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저자는 기도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좋든 싫든, 아무런 감흥이 없든 소중한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의 역할이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작은 축복과 커다란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신과, 천사와의 소통도 한층 원활해진다는 것이 저자가 전하는 기도의 팁이다.

이미 수백 만 명에게 버팀목이 된 기도와 명상의 힘을 상황 별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1. 기도의 천사들, 기도의 중요성, 치유의 천사들이 주신 기도
 2. 동물, 자연, 농업
 3. 슬픔, 희망, 불안, 수호천사를 향한 감사, 우울할 때, 비상
 4. 보호, 전쟁, 자연 보존
 5. 체중 감량, 섭식 장애, 외국 생활, 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대천사 미가엘을 향한 감사,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낼 때
 6. 부모와 자식, 손자손녀, 낯선 사람을 위해, 옳은 일 하기, 가족의 화합,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형제자매, 할머니
 7. 아픈 조부모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조부모님, 형제의 죽음, 자매의 죽음
 8. 실업, 노동자들, 신입사원들, 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 노숙자, 경제적인 지원, 집을 파는 일
- (이하 생략, 총 21장과 결론, 기도 목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나 번(Lorna Byrne)은 어릴 때부터 천사를 보고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족들이 그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한 덕분에, 전 세계를 여행하며 하늘에서 들은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다. 저서 『Angels in My Hair(국내 번역서 제목: 수호천사)』는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40개국에서 출판됐다. 그 밖에도 『Stairways to Heaven』, 『A Message of Hope from the Angels』, 『Love From Heaven』 등의 저서를 썼다.

제목 : THIS IS HOW I SAVE MY LIFE

가제 : 다시 시작하기 위해: 쓰러져 가는 몸을 이끌고 뉴델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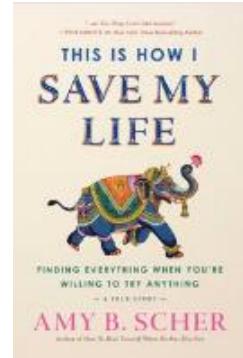
저자 : Amy Scher

출판사: Gallery Books

발행일: 2018년 4월 10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치료/여행에세이



- * “저자는 자신의 건강과 마음, 운명을 직접 만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그것도 아주 제대로 살아 있는!) 예시다. 이 책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 같은 영감을 불어 넣었으면 좋겠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Eat Pray Love』의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
- * “아픔과 고통, 절망을 용기와 믿음, 강력한 내면의 힘으로 이겨내고 건강하게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마음을 잡아 끄는 회고록” -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베스트셀러 『Brotherhood with Deepak Chopra』의 저자 산지브 초프라

온 몸이 병들고 기운이 다 빠져서, 아직 젊은 나이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환자가 타인의 손에만 맡겨두었던 목숨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다. 평생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한없이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 최후의 노력은 놀랍게도, 새로운 삶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만성 라임병 말기 진단을 받고 유능한 의사들이 다 방법이 없다고 손을 내저을 때 인도로 향한 저자는 그 기적 같은 치유의 과정을 이 책에서 전한다. 그러나 저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큰 병에 걸렸다가 말끔히 나은 투병기로 끝나지 않는다. 문화도, 환경도, 언어도 판이하게 다른 인도에서 깨달은 ‘치유’의 진정한 의미는 효과 좋은 치료법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이라는 사실을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여준다.

병원에서 라임병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진 뒤, 저자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실력 좋은 의사들을 찾아 미국 곳곳을 누볐다. 로스앤젤리스에서 미네아폴리스의 메이요 클리닉, 최신식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시카고의 한 병원까지 돌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온 몸을 잠식한 통증은 약을 먹고 잠이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 내내 떠나지 않았다. 몸 전체의 신경이 곤두서서 어느 한 곳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극심한 관절염 때문에 욕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도 무릎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변기에 앉으면 엉덩이 뼈가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해서 용변 보는 일도 고역이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심장은 마라톤을 뛰고 온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면역 기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대상포진이 곳곳으로 번지고 가벼운 감기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 말 한 마디 하려고 입술을 뿔 힘조차 없던 그 때, 저자는 지인에게서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다. 문제는 2007년 당시, 유일하게 그 치료법을 제공하는 병원이 인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임상 시험이나 다름 없는 치료법을, 그것도 낯선 외국에서 받는 일은 사실 희망은커녕 병을 고치려다 그나마 유지되던 가냘픈 목숨마저 단번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저자는 바로 여행 가방을 챙겼다. 쓰러져가는 몸을 이끌고 도착한 인도 뉴델리는 사방에서 자동차 경적이 끊임없이 울리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인도 구분도 잘 안 되는 길을 오가고 뿌연 먼지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저자는 이곳에서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유의 길에 들어선다.

줄기세포 치료는 궁극적인 치유를 촉발하는 일종의 촉매제였을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인도로 오게 된 것, 그래서 철저히 혼자 남겨지고 그제야 평생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오롯이 들여다보게 된 것, 증상을 없애고 병을 강그리 물리쳐야겠다는 전투적인 태도는 오히려 몸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보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서부터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됐다. 의학적인 치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떠한 병에서도 제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감명 깊은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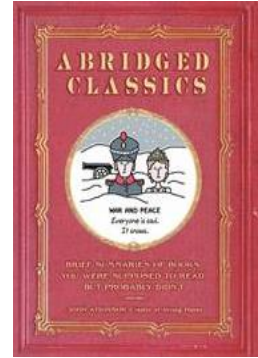
<목차>

1. 용기 - 2007년 12월
 2. 이런 세상에 - 1주차.
 3. 단단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굳건한 돌덩이 - 2주차.
 4. 똥림 - 3주차
 5. 다시 시작하기 위해 - 4주차
 6. 불 붙은 뇌 - 5주차
 7. 받아들이기 - 6주차
 8. 인도에서의 마지막 2주 - 깨달으면, 정말로 알게 된다
 9. 예스 - 인도에 다녀온 이후의 시간들
- 감사의 말

<저자 소개>

에이미 쉐어(Amy Scher)는 베스트셀러 저술가이자 몸과 마음의 치유법을 알리는 에너지 치료사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How To Heal Yourself When No One Else Can』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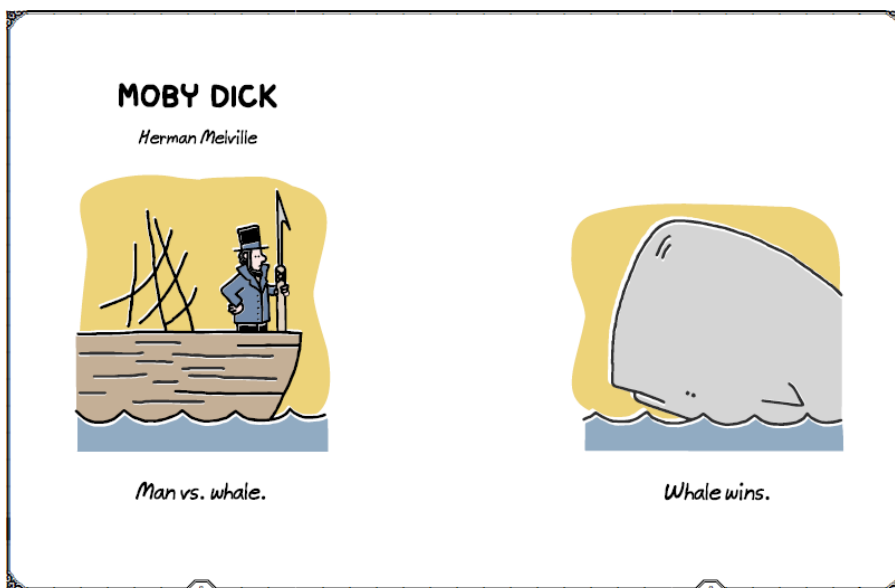
제목 : ABRIDGED CLASSICS
가제 : 고전문학 3초만에 아는 척하기
저자 : John Atkinson
출판사: Harper Design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문학/유머



*** 100권 이상의 서양 고전문학을 컬러 일러스트와 한두 문장으로 축약한 독특한 책**

“고전.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읽지는 않는 책.”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처럼, 제목과 작가 이름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내용은 알지 못하는 고전 문학이 참 많다. 수능 시험처럼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책 전체를 읽기보다는 요약된 줄거리만 찾아보고 끝내고, 영화화된 작품도 두 시간 안팎의 영화를 보고 끝낼 뿐 그 바탕이 된 고전을 굳이 다 읽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혹은 큰 마음 먹고 책을 사놓고도 몇 장 들추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직접 책을 읽기보다 남이 읽고 남긴 서평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을 제대로 노린 이 독특한 책은 150 페이지를 조금 넘는 분량으로 100여 권의 서양 고전문학을 소개한다. 책 한 권당 최대 두 페이지, 최대 두세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 그대로 ‘한 눈에’ 각 고전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한 흥미로운 책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에밀리 브론테, 레오 톨스토이, 제인 오스틴, 마크 트웨인, J.R.R. 톨킨, 제임스 조이스, 마거릿 애트우드, 플라톤, 어니스트 헤밍웨이, 댄 브라운, 아인 랜드, 그리고 허먼 멜빌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작가들이 남긴 주옥 같은 작품들을 최대한 압축시킨, 기발한 발상은 페이지마다 절로 웃음 짓게 한다.



MADAME BOVARY

Gustave Flaubert



Bored woman misbehaves,
then kills herself.

100

THE STRANGER

Albert Ca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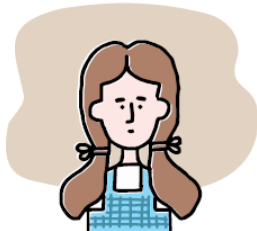


Mother dies. Stranger dies.
Existentialism lives.

101

THE WONDERFUL WIZARD OF OZ

L. Frank Baum



Young girl's fanciful
ordeal over footwear.

110

RICHARD III

William Shakespeare



Jerk kills everyone until
he's king (see also Macbeth).

111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음

<저자 소개>

존 앳킨슨(John Atkinson)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만화 『Wrong Hands』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책으로도 출판되고 여러 웹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타임」지에도 정기적으로 기고해 왔다.